

◇오인철대한건설협회도회



장은 3일 오전 10시30분 흥천 크리스탈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리는 흥천군번영회 신년교례회에 참석.

“평창올림픽 물자 적기공급”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강대춘 강원지방조달청장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 금리 인상,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 여러 악재에 따라 2% 초중반대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조달청은 이에 대응해 공공조달 수요를 활용한 내수 진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조달사업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강원지역 생산물품의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높은 기술력에도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 창업 초기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도록 돕겠습니다.

특히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1년여 앞둔 시기인 만큼 대회 관련 시설 안전준공, 물자 및 행사용역 적기공급으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호 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

올해 우리 경제는 소비투자 심리 위축, 가계부채 폭증 등 여러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부정적 경제 전망과 예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지난 수년간 숭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낸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강원도 상공회의소협의회도 지역의 현안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산업 활성화 정책을 제안,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자문, 교육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올 한 해 상공인 모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동계올림픽이 우리 경제와 강원도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3일

오전 10시 30분 홍천  
크리스탈컨벤션웨  
딩에서 열리는 신년  
교례회에 참석한다.

# 올도·시군 당초예산 12조3861억

지난해보다 532억 감소

시·군 중 춘천시 최고액

영월군 증가율 최고 기록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올해 당초예산이 12조 3861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도 분청과 18개 시·군의 당초예산은 12조 3861억원으로 지난해 12조 4393억원에 비해 532억원이 감소했다. 강원도 분청의 당초예산은 4조 7124억원으로 지난해 5조 11억원에 비해 5.8%인 2887억원이 줄었다. 하지만 18개 시·군의 당초예산은 7조 6737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2%(2355억원) 증가했다.

시·군 가운데 춘천시의 올해 당초예산이 973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주시 9648억원, 강릉시 7584억원, 삼척시 4580억원, 홍천군 4503억원, 평창군 3626억원, 영월군 35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양양군은 올해 당초예산이 2542억원

## »» 2017년 강원도 당초예산

구분	2017년 예산
도 분청	4조7124억원
춘천시	9730억원
원주시	9648억원
강릉시	7584억원
동해시	3367억원
태백시	3033억원
속초시	2854억원
삼척시	4580억원
홍천군	4503억원
횡성군	3380억원
영월군	3500억원
평창군	3626억원
정선군	3599억원
철원군	3423억원
화천군	2604억원
양구군	2674억원
인제군	3382억원
고성군	2698억원
양양군	2542억원
합계	12조 3861억원

으로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적었다.

영월군은 지난해 3134억원에서 올해 3500억원으로 11.7%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속초시도 2854억원으로 두자리수(10.0%) 증가세를 기록했다. 반면 고성군(2698억원)과 양양군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2.5%, 2.0% 예산액이 줄어들었다.

도는 올해 강원도를 포함한 도내 자치단체의 전체 당초 예산이 12조원 규모지만 추경 등을 거치면 최종 15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도 12조원 규모의 당초예산이 추경을 통해 15조 3000억원대로 증가했다. 도 분청이 6조 3905억원, 시·군이 8조 9263억원의 예산을 최종 확보했다.

도 관계자는 "4000억원 규모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기금으로 관리전환되면서 도 분청의 당초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다"며 "추경을 거치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오인



# 건설업, 올 상반기 하루 평균임금 17만9690원

기능인력 수요 증가 영향에  
작년 하반기보다 2.64% 상승  
젊은층 확보는 여전히 난항

건설산업이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 원가 계산에 적용하는 하루 평균임금(전체 117개 직종)은 17만9690원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새해 1월1일자로 2017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는 작년 하반기(17만5071원·2016년 9월1일 공표)보다 2.64%, 작년 상반기(16만8571원·2016년 1월1일 공표)보다 6.60% 상승한 것이다. 이 같이 임금이 증가한 것은 인력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평균임금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체 117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은 작년 하반기보다 2.79% 상승했다. △광전자 3.04% △문화재 2.28% △기타 직종 3.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월급제 기능인이 많은 원자력직종은 전반기보다 0.73%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5월 기준 임금조

분야별 평균임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직종수	공표일			변동률(%)	
		2017.1.1	2016.9.1	2016.1.1	전반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체직종	117	179,690	175,071	168,571	2.64%	6.60%
일반공사직종	91	169,999	165,389	159,184	2.79%	6.79%
광전자직종	3	262,656	254,913	240,606	3.04%	9.16%
문화재직종	12	213,706	208,944	204,251	2.28%	4.63%
원자력직종	4	214,801	216,386	209,359	-0.73%	2.60%
기타 직종	7	191,745	185,041	175,270	3.62%	9.40%

사 이후, 4개월 뒤인 9월 임금을 조사한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경기 호조로 착공 이후 기성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기능인력 수요가 증가한 것이 이번 임금 상승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건설협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건축 착공면적이 크게 증가했다. 주택 착공 실적은 2014년 50만8000가구에서 2015년 71만7000가구로 41.2%가 급증했다.

건설기성은 실제 진행된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를 나타낸다. 지난해 5월 9조4050억원에서 9월엔 10조150억원으로 6.5% 증가했다.

건설협회는 이런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은 기능 인력의 건설현장 기

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등 현장에서는 숙련된 기능 인력의 확보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능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임금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통계는 전국 2000개 공사현장의 2016년 9월 건설근로자 임금을 조사·집계한 것이다. 2017년 1월1일부터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수 있다.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공표자료)’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cak.or.kr>)→건설업무→건설직산기준→건설임금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상준기자 newspia@